

농진청 축산연, ‘축산과학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세계적 과학원으로 도약할 것”… 현판식 가져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가 ‘축산과학원’으로 기관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지난 6월 13일 수원청사에서 농촌진흥청장과 축산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명칭을 축산연구소에서 ‘축산과학원’으로 바꾸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축산과학원(NIAS: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원)은 그동안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관련기관(축산기술연구소 등)의 명칭이 유사하여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장기 생산 및 신약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국가연구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기관명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4일(월) 대통령령에 의거 기관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축산과학원’은 1952년 중앙축산기술원으로 출발, 1994년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이 통합,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 후 2001년 책임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2004년 축산연구소로 개편 후 이번에 ‘축산과학원’으로 명칭이 변경, 우리나라 과학기술축산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축산관련 연구개발(R&D)기관이다.

이날 현판식에서 이상진 원장은 “축산과학원의 목표를 ‘고객에게 환영받는 과학원’, ‘창의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과학원’으로 정한만큼 이를 위해 모든 연구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칭변경에 걸맞게 무한경쟁시대에 국내외 변화를 주도하며 세계적인 과학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